

## 도전정신

초등학생 때 한 시간을 도보로 등하교했습니다. 어느 날 집 방향이 비슷한 친구와 같이 하교하게 됐고 그 친구 집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다툼이 있었고 친구는 저를 두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져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찾기 쉬웠고 순간 겁이 난 이유로 길을 찾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길을 찾아주신 분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스스로 이 정도 일도 해결 못 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황하지 말자'이고 두 번째는 '도전하자'입니다.

이후 저는 일부러 다른 길로 하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다니지 않아서 처음 보는 길로 가보고 돌아가야 했던 길을 눈을 따라서 가로질러도 보고, 차도를 따라서 가던 길을 골목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는 때도 있었지만 집이 있는 방향만 기억하면 어떻게든 집을 찾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헤매기도 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도전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수학과에 진학하면 수학에 타고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노력만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도전하여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만 했는데 내가 천재들이 넘친다는 컴퓨터 과학 세계에 발을 들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래밍 세계에 도전하여, 개발자는 웹 분야 말고는 처음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주위 말을 듣지 않고 전공을 살리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를 도전했습니다. 이 분야는 대학원을 나와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을 깨보겠다는 일념으로 인공지능 분야로 도전한 것도 그때의 경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얼마나 제대로 해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 지원 동기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JAVA를 독학했었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처음에는 거의 웹 개발자로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웹 개발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뺏고 많이 지원하는 분야라고 알고 있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저의 전공인 응용 수학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로 지원해서 처음 들어가게 된 회사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의료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에 더해 의료 데이터 보관 및 딥러닝 학습만을 위한 서버를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틈틈이 인공지능 공부를 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데이터 분석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 참여하여 머신러닝 위주의 학습을 하면서 딥러닝보다 인과관계가 확실하므로 더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아이디어에 더해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회사의 경험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료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기획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이 필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에 더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IT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이를 극복해 나간 과정

대학 입시 시절에 제가 원하는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 수학이었지만 컴퓨터 공학과가 더 끌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하셨고 결국 응용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은 괜찮았지만, 문제는 컴퓨터 공학과 친구의 공부 분위기를 듣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친구는 대학 때 여럿이서 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로 만들어냈다고 했고 저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했습니다. 친구의 공부 분위기는 저에게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제가 느꼈던 만족은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면서 수학도 괜찮다 생각하며 자기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표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지에 만족하기보다 스스로 책임질 각오로 도전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저는 우선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기에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대학 생활 동안의 생활비까지 벌 생각으로 1년 휴학을 한 후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중공업과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고된 일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

니다. 목표한 금액인 2천만 원을 넘게 모았지만, 등록금까지 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벼락치기는 저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강의가 끝나면 바로 복습하며 틈틈이 공부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4학년이 돼서 빨리 취직 후 독립을 목표로 졸업학점을 1학기에 전부 채우고 여름 방학 때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150권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졸업 전에 취직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성급한 취직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저는 현재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며 채우고 있지만, 이 또한 책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겠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강점과 약점

강점은 통솔력과 의사소통능력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당시 팀원 모두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했다가보다 어떤 분야인지 궁금해서 참여한 듯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론과 과정이 힘들어 보였고 자신이 역할을 몰라 의욕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도중에 하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결속력을 다져야 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제거 먼저 어떻게 진행할지 구상해서 팀원들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할 일을 부여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의 팀원에게는 지속해서 진행 과정을 물어 다른 팀원들에게도 환기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통솔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팀원으로서 팀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거나 잘못 전달되어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때 목소리를 내어 잘못될 수도 있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작업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점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답답해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화는 팀의 분위기나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후에는 필요한 대화와 여담을 적절히 섞으며 대화 상대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분야에 대한 노력

대학생 때 C언어와 JAVA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첫 회사에서 서버 구축을 담당하여 리눅스 서버로 구축했고, 외부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전체 과정과 추가 구축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눅스 기초와 서버에 대한 이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SQL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홈쇼핑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적 향상을 위한 상품 배치 시각을 예측했으며 Regression 모델과 Neural Network 모델을 통해 최종 정확도 90%를 달성했고 미래 상품에 대한 편성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 간 각 팀원의 성격을 파악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한 팀원에게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전에 조사했던 업무를 분배했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팀원에게는 끊임 없이 질문하여 어느 과정에 있는지 다른 팀원에게도 진행 상황을 환기하며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스터디 참여하여 4개월 동안 주 1회 회의를 통해 공부한 것과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파이썬 문법의 기초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 포부

엔지니어링 기술을 충분히 습득함과 동시에 꾸준히 딥러닝 공부를 하여 궁극적으로 딥러닝 전문가로서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꽃은 딥러닝입니다. 그러나 관련 직무 경험에서 느낀 점은 결과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 AI가 중요 과제이면서 어려운 과제이고 저도 이 부분의 현재 딥러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미래는 딥러닝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학습의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딥러닝 모델링에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통찰력과 비즈니스 자체를 이해하고 방향을 정해줄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입사 후 많은 데이터를 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익히고 딥러닝 지식을 습득하고 딥러닝 관련 도구를 이용한 구현 활동을 통해 딥러닝 모델링의 감각을 익혀, X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딥러닝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